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1. Vol. 22. No. 3. pp. 149~174.

청소년의 적응군집화 및 5요인 성격특성이 집단판별에 기여하는 변인

김지현* · 하문선** · 김복환***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학교적응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삶의 만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에 따른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5요인 성격 특성이 유의하게 군집을 판별해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고등학생 총 245명(남자 175명, 여자 70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5요인 성격 특성이 각 군집을 판별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판별함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5요인 중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이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좋은 판별 변인이었다. 전체적으로 적중률(hit ratio)은 56.1%이었고, 특히 군집3에 대한 적중률은 64.7%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예측하고 판별하는 도구로서 간편형 5요인 성격척도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교적응, 5요인 성격 특성, 삶의 만족, 우울, 학업성적,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박사과정, 교신저자, sunny7601@hanmail.net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박사과정

Ⅰ. 서 론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의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다. 또한 발달단계상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성인기 이후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ten & Coatsworth, 1998; Richman, et al., 2004).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이며, 자살 이유가 학업성적과 진로문제(53.4%)라는 점은(통계청, 2011)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는 학생수가 2010년 기준으로 50,259명에 달하고 있어(한국교육개발원, 2010) 그 심각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의 실시, 심리상담의 확대, 대안학교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 및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먼저 학교부적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부적응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파악하고자 다양한 성격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5요인 성격 검사도 그 중 하나이다. 5요인 성격검사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 학업성취, 진로선택, 개인의 독특한 적응 양식을 예측해 줌으로써 그 활용 범위가 넓다(Costa & McCrae, 2008; 하대현 외, 2008). 하지만 다수의 5요인 성격검사는 문항수가 많아 학생들의 검사 주의집중력과 동기를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검사실시상의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실시 후 해석 및 검사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잘 지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격 특성 검사의 실제적인 활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실패는 우울, 낮은 학업성취,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 비행행동, 진로에 대한 낮은 기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fet & Bernafdini, 2003; Rumberger, 2004; 김용래, 1993; 문은식, 2002; 구본용, 2004; 강희라, 2005; 송영란, 2007). 결국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학업에서의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은 청소년기 적응의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적응 지표라 할 수 있는 삶의 만족, 우울, 학업성적,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개인의 성격차원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촉진하는 효과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간편형 성격특성 검사가 개발되어 보다 편리하게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간편형 성격특성검사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지현 외, 2011)에서 간편형 성격특성검사의 활용성이 검증되었다. 간편형 성격검사를 임상장면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적응 양상을 예측하는 스크리닝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삶의 만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 적응과 관련된 군집이 변별되는지 살펴보고, 5요인 성격특성이 각 군집을 어느 정도 판별해 주는지를 탐색해 봄으로써 학교 부적응의 잠재적 위험군을 진단하는데 5요인 성격검사의 실제적인 활용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격의 5요인 모형

인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잠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독특한 개인의 적응은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왔다(Costa & McCrae, 1992). Costa와 McCrae(2008)에 의해 더욱 정교화된 5요인 성격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타고난 기본적 경향성, 즉 성격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관, 태도, 능력, 역할, 관계 등과 같은 개인의 독특한 적응 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격의 5요인 모형이라 일컫는 이 성격 구조 모델은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증(Neuroticism)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개방성(Openness)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이며,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고,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Costa와 McCrae(2008)는 개인의 적응과 관련하여 5요인 성격 특성 중 높은 신경증은 낮은 자존감, 비관적인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성실성은 미래에 대한 장기 계획, 잘 조직된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다. 높은 외향성은 사회적 기술을 잘 발달시키고 모험적인 직업흥미를 가진다. 높은 친화성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를 더 쉽게 얻도록 해주지만, 낮은 친화성은 적과 경쟁하는 개인의 능력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직업적 흥미를 가지며,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발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격특성은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의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적응이나 부적응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Costa와 McCrae(1992)는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성격특성 프로파일의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5요인 성격 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지표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삶의 질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의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Park, 2004). 주관적인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이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정도를 일컫는다(Diener, 1984; 1994). Park(2004)은 삶의 만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중재하고 바람직한 심리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삶의 만족과 안정적인 개인의 심리적 속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성격 차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Headey & wearing, 1992). Costa와 McCrae(1980)에 의하면 외향성은 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경증은 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은 높은 외향성, 낮은 신경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했다(Furnham & Brewin, 1990; Lu & Shih, 1997; Hills & Argyle, 2001).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보다는 심리적 특성이 삶의 만족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재은 외, 1997; 조명한 외, 1994; 황정규, 1997).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차경호(1999)는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외향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정서적 지표로서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우울이 개인생활과 학교적응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은희 외, 2000; 신정이・황혜원, 2006; 김명식, 2008).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 가운데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낮은 학업성취 등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학교적응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정서는 개인의 성격특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5요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에서 신경증이 우울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usting & Larsen, 1998; 이경임・안창규, 1996; 이은경・이기학, 2005).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언급할 때 학업성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로 학교성적문제를 들고 있을 만큼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서 성적은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학교적응개념을 구성할 때 학업성적을 항상 포함한다는 것은 학교적응의 지표로서 학업성적의 중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Bierman, 1994; Maatta et al., 2007). 학업장면에서의 수행을 예언함에 있어서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외에 성격검사와 같은 비인지적 검사가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제안된 바 있다(Hogan et al., 1996). 학업성취와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보면 거의 일관되게 신경증, 성실성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unonen & Ashton, 2001; Lounsbury et al., 2002; Laidra et a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성실성이 학업성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안현의, 2006; 하대현 외, 2008). 성실성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성취지향적이며, 자기 원칙과 계획적인 사고양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더 높은 학업 성취와 간련되어 있는 것이다.

진로선택과 적응에 대한 자기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송영란, 2007; 김선연, 2008). 청소년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의 시기로, 진로 준비 및 계획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학교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흥미나 진로의사결정기술의 발달에서 성격의 잠재적 역할에 여러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Costa & McCrae, 1992; Piedmont, 1998). Piedmont(1998)는 각각의 5요인과 진로미결정 변인들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잘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신경증의 경우 부정적 정서와 취약성 때문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고, 외향성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 균형과 긍정적 정서가 성공적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 성실성은 조직화, 책임감, 성취욕구등이 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능력에 강한 자기효능감 신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 그러나 개방성과 친화성에 대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 적응과 관련된 군집이 변별되는가?

둘째, 5요인 성격특성이 각 군집을 어느 정도 판별해 주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2개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학년 74명, 2학년 157명, 3학년 14명 총 245명(남자 175명, 여자 70명)을 대상으로 간편형 한국어 BFI, 삶의 만족도 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우울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적은 학기말 전 과목 평균 점수를 학생 개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사전에 설문지 실시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설문을 직접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고등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1999)이 개발한 BFI(Big Five Inventory)를 바탕으로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타당화한 간편형 한국어 BF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경증(N) 3문항, 외향성(E) 3문항, 개방성(O) 3문항, 성실성(C) 3문항, 친화성(A) 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각 요인별 Cronbach α는 신경증이 .75, 외향성이 .74, 개방성 .82, 성실성이 .75, 친화성이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신경증이 .67, 외향성이 .75, 개방성 .78, 성실성이 .80, 친화성 .65이었다.

2) 삶의 만족도 척도

Diener, Emmons, Laresn와 Criffin(1985)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매우 그렇다)상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연지(1996)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7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3이었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고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s(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은경(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은경(2000)은 요인분석을 통해 자기평가를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고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은경(200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5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 척도는 Beck, Ward, Mock와 Erbaugh(1961)들이 개발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0에서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에 따라 집단이 변별되는지 확인한 후, 5요인 성격 특성이 집단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 α를 구하였다. 또한 간편형 한국어 BFI의 하위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인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의 조합에 따라 몇 개의 군집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5요인 성격 특성이 각 군집을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판별한다면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5요인이 청소년 집단의 적응과 부적응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지, 집단 판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성격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Wilks' λ 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5요인 성격 특성과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 간 상관

본 연구에서 측정한 5요인 성격 특성의 하위 요인들과 학교적응관련 지표 간 상관 및 각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47)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r=-.52)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우울(r=-.41)과는 부적상관을, 학업성적(r=.19)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학업성적(r=-.15)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고등학생들은 삶이 만족스럽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우울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학생은 우울 정도가 낮으며 학업성적이 대체로 높았다. 또 우울감을 더 지각할수록 학업성적 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5요인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은 성실성(R=.38), 개방성(R=.3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화성(R=.16), 외향성(R=.13)과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신경증(R=-.35)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실성(R=.39), 개방성(R=.31), 친화성(R=.20)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신경증(R=-.2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우울과는 신경증(R=.56)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실성(R=-.28), 외향성(R=-.22), 개방성(R=-.14), 친화성(R=-.14)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성적은 성격특성 5요인 중 성실성(R=.21)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신경증 (N)	외향성 (E)	개방성 (O)	성실성 (C)	친화성 (A)	삶의 만족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우울	학업 성적
1	-								
2	-.13*	-							
3	-.08	.34**	-						
4	-.16*	.06	.33**	-					
5	-.00	.03	.26**	.30**	-				
6	-.35**	.13*	.31**	.38**	.16*	-			
7	-.21**	.08	.31**	.39**	.20**	.47**	-		
8	.56**	-.22**	-.14*	-.28**	-.14*	-.52**	-.41**	-	
9	-.02	-.02	.04	.21**	-.07	.13	.19**	-.15*	-
M	8.80	9.95	10.20	9.80	10.72	17.65	84.79	31.63	65.11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8.48 9.60	9.63 10.74	10.24 10.09	9.78 9.77	10.89 10.31	18.22 16.21	84.91 84.46	30.99 33.22	63.76 69.60
SD	2.64	2.50	2.29	2.23	2.05	5.90	15.64	6.96	15.9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67 2.38	2.57 2.12	2.31 2.25	2.29 2.06	1.99 2.16	5.83 5.87	15.51 16.06	6.46 7.92	16.77 11.86

주. N=245(남=175, 여=70) **p < .01, *p <.05
1. 신경증(N) 2. 외향성(E) 3. 개방성(O) 4. 성실성(C) 5. 친화성(C) 6. 삶의 만족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8. 우울 9. 학업성적

2. 군집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의미있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및 학업성적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Hair과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이다. 위계적 군집방법만을 사용할 때는 이탈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비위계적 군집방법만을 사용할 때는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군집변인들을 측정한 도구들은 그 점수 한계가 달라 정상분포에 따른 표준화 점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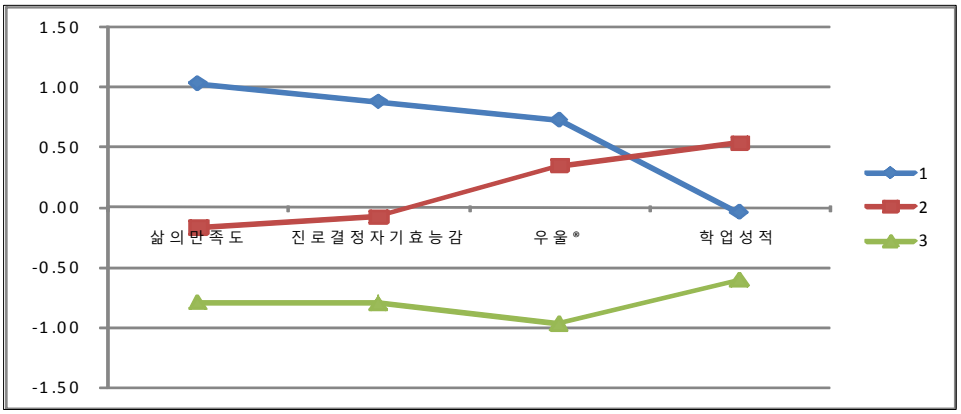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3개의 군집에 배정되었고, 군집1은 62명(25.3%), 군집2는 84명(34.3%), 군집3은 68명(27.8%)으로 나타났으며 31명은 결측 처리되었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낸 결과는 〈표 2〉와 같고,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점수들이 표준화되었으므로 각 군집변인들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다. [그림 1]에서 군집1은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R) 점수가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학업성적은 중간인 집단이다. 군집2는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R) 점수가 중간 수준이며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3은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R), 학업성적이 모두 가장 낮은 집단으로 학교 환경에서 가장 부적응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이다.

<표 2>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변인	군집1 (n=62)	군집2 (n=84)	군집3 (n=68)
삶의 만족도	1.03	-0.17	-0.7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88	-0.08	-0.80
우울(R)	0.72	0.34	-0.97
학업성적	-0.05	0.54	-0.60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우울(R)은 역채점점수임 : M=0, SD=1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3. 판별 분석 결과

학교적응지표를 군집 변인으로 사용한 군집 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5요인 성격 특성이 이 3개의 군집을 판별하는 유의한 설명변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입력' 방식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5요인의 BOX's M의 값은 36.01(F=.1.16, df1=30, df2=125878.05, p=.25)이었으므로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군집평균의 동질성 검증 결과(<표 3>)는 5요인 성격 특성 중 외향성(E)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각 군집 간 차이를 설명해주는 변수임을 보여준

다. 특히, 군집 판별과 관련하여 가장 작은 Wilks' λ와 가장 큰 F값을 나타낸 신경증(N)이 성격의 5요인 중 판별력이 가장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군집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 결과

요인	Wilks' λ	F	df1	df2	p
신경증(N)	.846	19.273	2	211	.000
외향성(E)	.984	1.706	2	211	.184
개방성(O)	.863	16.786	2	211	.000
성실성(C)	.849	18.737	2	211	.000
친화성(A)	.969	3.373	2	211	.036

다음으로, 각 집단 특성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독립변수인 성격 5요인의 세 군집을 판별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총 2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는데, D1=-.690(N)+055(E)+.364(O)+.588(C)+.110(A)+.003이며, D2=.426(N) -.401(E) +1.073(O)-.255(C)-.188(A)+.026이었다.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ilks' λ에 의하면(〈표 4〉), 2개의 판별함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함수들이었다. 그러나 판별함수의 고유값을 살펴보면 .407, .070으로 먼저 도출된 판별함수 1이 고유값이 크고 전체 설명 분산의 85.4%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 간의 상관을 의미하는 정준상관계수는 .538, 공유분산비율은 28.7%로 첫 번째 판별함수가 집단 구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5〉에서 판별함수 1에 의한 집단중심값은 각 집단을 잘 구별해 주고 있다.

〈표 4〉에서 판별함수와 각 독립변수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특히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과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5요인 중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이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좋은 판별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과 친화성은 판별함수에의 적재값이 .3보다 낮아 판별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 집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표 6〉), 군집1의 경우 56.5%, 군집2은 48.8%, 군집3은 64.7%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14명 중 120명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적중률(hit ratio)은 56.1%이었다. 각 군집에 대한 Fisher's 선형판별함수는 다음과 같았다.

군집1: -.521(N)-.079(E)+.517(O)+.419(C)+.068(A)-1.463

군집2: -.192(N)+.097(E)-.365(O)+.087(C)+.084(A)-1.162

군집3: .601(N)-.158(E)-.102(O)-.532(C)-.106(A)-1.433

이러한 분류함수는 새로운 학생의 5요인 점수 값들을 분류함수에 삽입하여 큰 값으로 나타나는 군집에 분류되도록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표 4> 5요인 성격 특성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요인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1	2
신경증(N)	-.651	.379
외향성(E)	.192	-.124
개방성(O)	.534	.784
성실성(C)	.660	-.043
친화성(A)	.280	.015

함수	고유값	설명분산	정준상관	Wilks' λ	χ^2	p
1	.407	85.4%	.538	.664	85.505	.000
2	.070	14.6%	.255	.935	14.077	.007

<표 5> 판별 함수별 군집 중심값

집단유형	판별함수별 집단 중심값	
	1	2
군집1	.832	.224
군집2	.029	-.326
군집3	-.795	.199

<표 6> 집단 분류 결과표

실제집단		예측집단			
		군집1 (%)	군집2 (%)	군집3 (%)	전체 (%)
빈도 (%)	1	**35 (56.5)**	18 (29.0)	9 (14.5)	62 (100)
	2	21 (25.0)	**41 (48.8)**	22 (26.2)	84 (100)
	3	10 (14.7)	14 (20.6)	**44 (64.7)**	68 (100)

주. 전체의 정확분류비율 **56.1%**

Ⅴ. 논 의

현재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자 널리 사용되는 5요인 성격 검사들은 검사 문항수가 많으며, 사후 검사 해석 및 활용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5요인 성격 검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편형 도구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학생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Pope, 1992). 이는 모든 검사에서 실시 후의 해석과 그 활용 방안이 검사의 실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며 검사의 목적과 가치와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판별하는데 적절하고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간편한 검사 도구의 사용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에 따라 고등학생을 학교 적응과 관련된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15문항 간편형 5요인 성격 척도(김지현 외, 2011)가 청소년의 학교적응 특성을 판별하는 스크리닝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 학업성적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Hair과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이 존재하였다. 이 중에서 군집3은 삶의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업성적이 모두 가장 낮고 우울은 가장 높은 집단으로 학교 환경에서 가장 부적응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이다. 부적응적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Gonzales et al., 2001; 김희중, 2007; 김태연, 2008; 박성희, 2011), 진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낮으며(Hackett & Betz, 1981; 송영란, 2006; 장경문, 2005; 김유나, 2009; 엄영순・최연실, 2009),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최재빈 등, 1999; 이영미・민하영, 2004; 이태현, 2004; Kernis et al., 1991)와 학업문제(안영복, 1985; 민병수, 1991; 양민철, 1995; 주현경, 1998; Woolley & Grogan-Kaylor, 2006; 최지은・신용주, 2003)를 동반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론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집단 구분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논리적 혹은 이론적으로 형성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집3에 속한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심리・정서적 문제 및 학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집1은 군집2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으며 우울은 낮으나, 학업성적은 중간 정도인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진로선택과 미래 진로 계획에 자신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학생들이 반드시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수한 학업성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경쟁 속에서 학업성취도 향상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 성적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통 정도의 학업 성적을 나타내는 학생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덜 건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요인 성격 특성이 군집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판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2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군집을 가장 타당하게 판별해주는 요인은 신경성(N), 개방성(O), 성실성(C)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에서의 적응을 판별 혹은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깊게 관련된 성실성과 개방성(Digman & Inouye, 1986; 김동일・안현의, 2006; 하대현 외, 2008) 및 정서적 요인과 높은 상관이 있는 신경증(Medvedova, 1998; John, O. P. et al., 1994; 하대현 외, 2008)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적응이 외향성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차경호, 1999)나 외향성이 교육에서의 유능성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연구

(Barrick & Mount, 1991)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우수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5요인 성격 특성의 비교에서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결과(Lounsbury et al., 2003)와는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성격 요인이 대학생 집단과는 다르며 특히 국가 간・문화 간 차이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적과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요구되는 대학생의 적응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평가 준거(조별과제물평가, 발표, 토론, 출석 등)를 반영하고 입시에서 자유로운 다른 나라 청소년의 적응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들의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도구의 선택과 사용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적응을 위한 관심 및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한 군집 3에 대한 적중률(hit ratio)은 64.7%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것은 간편형 5요인 성격척도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각 군집에 대한 Fisher's 선형판별함수 결과는 학교에서 시간제한적일 경우나 일부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빠르게 판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 부적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군집3의 경우, 다른 군집보다 신경증과 성실성 점수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선별 및 조기 개입은 예방과 관리, 더 나아가 치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인 조기 선별 및 개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실시가 간편하면서도, 선별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도구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15문항 단축형 5요인 성격검사인 '간편형 한국어 BFI'(김지현 외, 2011)가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 양상을 판별하는 스크리닝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부적응 학생의 학업상담, 진로상담, 생활지도 및 위기 상담 등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에 간편형 한국어 BFI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적응도를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와 중, 고등학생을 나누어 각 집단의 적응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표집의

수(N=245)가 다소 적으며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점, 두 개의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점,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적은 점 등 인구학적 변인이 제한적이다. 셋째, 본 연구의 변수 중 삶의 만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우울에 비해 학업성적에서는 유의한 성차($p<.05$)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남녀 간 분리하여 분석을 하면 부당하게 관심과 주의를 받지 못할 학생(예. 남학생 중 남자평균보다는 높으나 전체평균보다 낮은 경우)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학교 적응의 변인들 중 성차가 뚜렷한 한 변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가 경쟁하는 학교 상황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성별 군집 프로파일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업성적자료의 사용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객관적 성적 데이터를 수합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자신의 평균 점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학생 개인이 불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어 성적의 객관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 지표 중 학교 폭력 및 공격적 행동 부분을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비행 행동의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료 수집 방법 개발을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수업참여, 학습노력, 학습행동 통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규칙준수, 학교 폭력 및 비행 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변인을 학생의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5요인 성격 척도가 학교현장에서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스크리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희라(2005).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본용(2004). 학교를 떠난,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과제. 경기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학술세미나.

김동일・안현희(2006). NEO 청소년 성격 검사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pp. 77-91.

김명식(2008).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pp. 645-658.

김선연(2008).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능, 진로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 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유나(200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김지현・김복환・하문선(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제32권 제1호, pp. 47-65.

김태연(2008).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통한 성취,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중(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연지(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2011). 아동의 성격 강점에 대한 부모-아동 평정 일치도에 관한 연구 :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란(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정이・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이 영향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13권 제5호, pp. 123-154.

안영복(1985).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민철(1995).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적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영순・최연실(2009).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197-224.

이경임・안창규(1996). NEO-PI-R의 임상적 활용.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8권 제1호, pp. 65-79.

이영미・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4호, pp. 1-10.

이영호・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제10권 제1호, pp. 98-113.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이기학(2005). 우울과 긍정적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신경증과 외향성 척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6권 제2호, pp. 325-338.

이은희・최태산・서미정(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2호, pp. 69-84.

이태현(2004).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제2004권 제1호, pp. 223-245.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85-196.

조명한・김정오・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화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 61-94.

조성진・전홍진・김무진・김장규・김선욱・류인균・조맹제(2001). 한국 일 도시지역의

청소년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4호,** pp. 627-639.

주현경(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2호,** pp. 193-216.

최재빈・곽인호・이상현・최지호・조성민(199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력간의 상관관계. **가정의학회지, 제20권 제9호,** pp. 1144-1151.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 199-210.

통계청(2011). **2011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하대현・황해익・남상인(2008).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학업, 적응, 진로 관련 준거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3호,** pp. 609-629.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황정규(1997).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청소년문화: 심리 사회적 형성원인**(pp. 291-344).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Barrick, M. R. & Mount, M. K.(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Vol. 44,* pp. 1-26.

Beck, A. T., Ward, C. H., Mock, J. & Erbaugh, J.(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Bierman, K. L.(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Y:John Wiley & Sons. Wiley & Sons.

Costa, P. T. & McCrae, R. 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pp. 668-678.

Costa, P. T. & McCrae, R. R.(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a, P. T. & McCrae, R. R.(2008). The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 159-181). New York: Guilford Press.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20,* pp. 503-513.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1,* pp. 103-157.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pp.* 71-75.

Digman, J. M. & Inouye, J.(1986).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five robust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0, pp.* 116-123.

Fumham, A. & Brewin, C.(1990). Personality and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1*, pp. 1093-1096.

Gonzales, N. A., Tein, J., Sandler, I. N. & Friedman, R. J.(2001).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6 No. 4,* pp. 372-395.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7,* pp. 504-528.

Hackett & Betz(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8,* pp. 399-410.

Hair, J. H. Jrn. & Black, W. C.(2000). Cluster analysis. In Grimm, L. C. and Yarnold, R. R.(E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pp. 147-205). Washington DC.

Headey, B. & wearing, A.(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Melbourne: Longman Cheshire.

Hills, P. & Argyle, M.(2001b). Happiness, introversion-extraversion and happy introve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0,* pp. 595-608.

Hoffman, M., Levy-Shiff, R. & Malinski, D.(1996). stress and adjustment in th transition to adolescence: Moderation effects o neuroticism and extrover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No. 2,* pp. 161-175.

Hogan, R., Hogan, J. & Roberts, B. W.(1996). Personality measurement and employment decis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51,* pp. 469-477.

John, O. P. & Srivastava, S.(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 102-138). New York: Guilford.

John, O. P., Caspi, A., Robins, R. W.,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1994). The "Little Five": exploring the nomoligical network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Vol. 65,* pp. 160-178.

Kernis, M. H., Grannermann, B. D. & Mathis, L. C.(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1*, pp. 80-84.

Laidra, K., Pullmann, H. & Allik, J.(2007).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 cross-sectional study from elementary to secondary scho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2,* pp. 441-451.

Lounsbury, J. W., Tatum, H., Gibson, L. W., Park, S. H., Sundstrom, E. D., Hamrick, F. L. & Wilburn, D.(2003). The development of a big five adolescent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Vol. 21*, pp. 111-133.

Lounsbury, J. W., Sundstrom, E., loveland, J. M. & Gibson, L. W.(2002). Intelligenc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work drive as predictors of course gr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 35,* pp. 1009-1019.

Lu, L. & Shih, J. B.(1997). Personality and Happiness: is mental health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 22,* pp. 249-256.

Masten, A. S. & Coatsworth, J. D.(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205-220.

Maatta, S., Nurmi, J. E. & Stattin, H.(2007). Achievement orientations school adjustment, and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7,* pp. 789-812.

Medvedova, L.(1998). Personality dimensions-"little Five"-and their relationships with coping strategies in early adolescence. *Studia Psychologica, Vol. 40*, pp. 261-265.

Park, N. S.(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91 No. 1,* pp. 25-39.

Paunonen, S. V. & Ashton, M. C.(2001). Big Five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5,* pp. 78-90.

Piedmont, R. L.(1998).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NY: Plenum Press.

Pope, Kenneth. S.(1992). Ethical dilemmas encountered by member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 national survey. *American Psychologist, Vol. 47 No. 3,* pp. 397-411.

Rammstedt, B. & John, O. P.(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1,* pp. 203-212.

R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 interactional-development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Rumberger, R. W.(2004). Why students drop out of school. In Gary Orfied (Ed.), *Dropouts in anerica: Confrontion the Graduation Rate crisis*(pp. 131-155).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Rusting, C. L. & Larsen, R.(1998). Moods as sources of stimulation: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desired mood st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8,* pp. 321-329.

Tafet, G. E. & Bernardini, R.(2003). Psychoneuroendocrinological links between chronic stress and depression. *Progress in Neuro -Psychopharmacology & biological Psychiatry, Vol. 27,* pp. 893-903.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 pp. 63-81.

Woolley, M. E. & Grogan-Kaylor, A.(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Vol. 55 No. 1*, pp. 93-104.

ABSTRACT

The Clustering and Big Five Personality in Discriminating the Groups by the Level of School-related Adjustment

Kim, Ji-Hyeon* · Ha, Moon-Sun* · Kim, Bok-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ustering and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in discriminating groups by level of school-related adjustment, as experienced by Korea high school students. Data was collected by administering 4 questionnaires (the short version of BFI,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ression) to the participants who were 245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 the purposes of the data analysis, both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as emplo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subjects were grouped into 3 cluster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school-related adjustment. Secondly, Neuroticism, Openness, Conscientious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were seen to be significant variables when it came to discriminating the group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hort version of the BFI may be useful in screening for school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big-five personality domains, depression,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투고일 : 6월 12일, 심사일 : 6월 27일, 심사완료일 : 7월 22일

* Hongik University